**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6A – 마태복음 13:1-23: 왕국의 비유 I**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6A 강의는 천국 비유에 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적 담화를 소개하고 23절까지의 내용을 논의합니다. 지난번 테이프에서는 다소 서두르다 보니 마지막 부분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문장의 절반 정도를 놓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11장과 1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13장의 비유가 어떻게 적절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안타깝게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분이 마귀와 협력했다는 비난과 그와 같은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기회를 주시는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상대로 악용하고, 추가적인 중상모략을 퍼뜨리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다룰 자료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조금 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제가 빨리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빨리 들으실 필요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어쩌면 신약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절 중 하나인 예수님의 비유적 담론, 아주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비유 의 구조와 해석, 일반적인 비유,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 이어서 첫 번째 비유와 예수님의 해석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이 담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의 개요가 나와 있는 보충 자료 26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제공해 드린 자료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담화의 구조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있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담화의 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13장 3절에서 52절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주요 담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담화는 5절에서 7절까지의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담화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교 사명입니다. 두 담화 모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의 독특한 언급으로 끝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의 이 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론은 13:51과 52를 비유로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각각 네 개의 비유가 있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51과 52가 비유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3:52에서 예수께서 비유에 대한 서론적 공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집안이 된 모든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된 모든 서기관은 집안의 머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47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45절, 천국은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44절,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서론적 모티프를 파악하셨으니, 52절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다른 것과 비교하는 매우 간략한 비유나 진술 중 하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

따라서 13장 51절과 52절은 비유로 보아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는 각각 네 개의 비유로 구성된 두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13장 10-17절과 13장 36-43절에 답하십니다. 두 부분 사이에는 마태의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데, 이 논평은 비유가 시편 78편을 언급하는 13장 34-35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매우 유사한 두 개의 짧은 비유가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고, 두 개의 짧고 유사한 비유가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13:31-33과 13:44-46 비교). 해그너처럼 담론에 대칭적인 구조가 전혀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제안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데이비스와 앨리슨의 접근 방식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담론의 각 부분이 비유로 시작하여 서론(실례합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 그리고 비유에 대한 추가 논의로 이어지는 3부 구조를 제안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13장 1-9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비유 본론을 보고, 10-17절에서 성경 인용에 대한 논의와 18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해석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일련의 비유는 13장 24절에서 13장 43절까지 제시되고, 논의되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은 다소 다른데, 13장 44-48절에서는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49절과 50절에서 해석되는데, 적어도 그물에 대한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 51절과 52절에서는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나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다소 유혹적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논의와 해석의 순서가 뒤바뀌는 3절에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점을 발견한다면, 이 접근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의 전반부는 무리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1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신 후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13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후반부 비유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13장 36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웬햄이 1979년에 쓴 저널 논문에서 그 측면을 좀 더 잘 다루는 구조 접근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롬버그가 그 논문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웬햄은 구조의 초점이 중앙에 맞춰지는 카이아스무스, 즉 내향적 병렬법을 포함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 노트를 보시면, 페이지 중앙에 E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여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 담화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의 양쪽에는 두 쌍의 짧은 비유, 11장 4절과 46절의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는 24절에서 30절까지의 가라지 비유와 47절에서 50절까지의 그물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역시 선과 악을 대조합니다.

있는 씨 뿌리 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이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에서 51절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하세요. 물론 담화는 1절에서 9절까지 의 씨 뿌리는 사람 의 비유로 시작하여 왕국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씨 뿌리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왕국을 위해 훈련받은 집주인의 비유로 끝납니다 . 제 생각에 이것은 이 담화의 구조에 꽤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예수는 무작위로 말씀하지 않았고, 편집자인 마태는 분명히 우리가 무작위로 장보기 목록을 만들고 임의적으로 적어내는 것처럼 이 비유들을 여기에 그냥 쏟아 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칭이 있고 , 아름다움과 문학적 미적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오남의 분석은 담론의 두 반쪽을 아주 잘 지적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보화와 진주의 두 개의 짧은 짝을 이룬 비유의 대칭성을 보는 것도 옳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즉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이 밀 속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인 13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해석과 평행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비유 해석에 대한 간략한 논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의 주석은 비유 해석에 대한 간략하고도 매우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며, 비유에 관한 여러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신저의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비유에 대한 참고 문헌 목록과 해석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블롬버그의 비유 책도 추천합니다 . 이 책 역시 비유 에 대한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상상력 넘치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꽤나, 아니 어쩌면 터무니없는 설교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도 고백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경우 주일학교에서 이 비유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적절합니다.

비유는 실제로 천상의 의미를 지닌 지상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천상의 의미들이 비유에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부들, 즉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부 저자들은,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변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살펴보신 적이 있다면 , 비유에 관한 여러 책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설정이죠.

여리고는 죽음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는데, 이는 아마도 달을 뜻하는 여리고라는 단어의 어원 때문일 것입니다. 달은 차고 이지러집니다. 따라서 여리고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담을 공격하는 도둑들은 물론 악마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강도를 맞고 구타당한 사람을 데리러 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돕지 않으려는 두 사람, 레위인과 다른 한 사람은 구약,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는 모습은 바울이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석이 궁극적으로 이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역사적 또는 문학적 맥락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그 진정한 해석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화적 접근 방식은 비유를 원자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비유를 조각조각 분해할 뿐이며, 복음서 저자가 각 조각들을 어떤 구조로 구성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 부상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우화가 처음 언급된 역사적 또는 문학적 맥락보다는 현대 독자의 순발적인 반응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종종 우화의 역사 및 문학적 맥락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결과를 낳습니다. 100여 년 전, 우화 작가 들의 과도한 해석에 대한 반발로 아돌프 율리허라는 독일 학자는 『다이 글라이크니스』 (Die Gleichnis)라는 책을 썼습니다. 1899년 예수 의 비유적 가르침과 그 이후의 많은 다른 주장들은 예수의 비유는 우화와 달리 단 하나의 주요 요점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협한 접근 방식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자신의 비유 해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숙련된 화자와 작가들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데 내재된 의미의 다의성이나 유연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비유를 그 자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비유의 세속적인 세부 사항이 천상적인 의미를 얼마나 전달하는지 판단 하기 위해서입니다 . 블롬버그와 라이헨의 비유에 대한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두 권의 책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화는 분명 알레고리이지만, 그것을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알레고리적인 측면은 작가가 하는 일이며, 독자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화의 이미지는 다른 독자들이 덧붙인 부수적인 범주가 아니라, 그 자체의 오랜 역사적, 문학적 관습에 따라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사용된 이미지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유적 이미지는 이야기의 주요 인물과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서로 연결되므로, 앞선 맥락이 핵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 비유적 이미지를 맥락적 문제에 적용하는 결론적인 일반 논평이 있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문맥에 맞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드러내고, 천국의 원수들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13:10-16). 이 비유들의 주된 초점은 천국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13:19).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의 주된 배경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반대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제자들이 이러한 반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전적 세대주의는 비유들을 주로 미래의 천년왕국을 언급하거나, 거부된, 제시된, 거부된, 그리고 연기된 왕국의 신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투생과 월부르드의 마태복음 주석은 그러한 견해를 취하는데, 저는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왕국은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10장 7절, 그리고 특히 12장 28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유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왕국의 모습과 미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현대적 맥락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13장 19절에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3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자신들을 교회 전체로 여기며 세상 끝날까지 사역을 계속합니다.

24:14과 28:18~2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1~9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 두 번째 담화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11:1에서 두 번째 담화가 끝난 후부터 마태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반복적인 거부와 반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그들 자신의 선교 여행에서 같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10:18과 24:25). 분명히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의심을 품었던 요한과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13:46~50)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살인 음모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완강히 반대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담화는 왕국 메시지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강조하며, 이러한 반응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13:23, 13:30, 13:40-43, 13:49-50).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왕국을 거부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13장 10-17절로 넘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것이고, 그분의 사역에서 벗어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여 유대인들이 천국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연기된 천국에 대해 오직 신비로운 언어로만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생과 발부르드 같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7절, 24-27절, 9장 15-17절, 11장 16-19절, 12장 29-33절, 43-45절 이전에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특정 부분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장 3-7절, 16장 2-4절, 19장 4-9절, 19장 17-22절,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21장 23절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의가 때때로 주장해 온 것처럼 13세 이전의 비유가 아닌 것과 13세 이후의 모든 비유 사이에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전환점을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실제로 반대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적 담론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법도 아니고, 지연된 왕국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분의 왕국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현재 반응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 비유들은 세상 끝날까지 열방이 그들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똑같이 정확하게 묘사할 것입니다.

투생과 월부르드 같은 세대주의자들과 우리가 의견이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의 결정적인 본질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임재, 특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비유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은 영화롭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상호작용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사야 6장, 9장, 10장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특권을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게 확언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선 11장 25-27절만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11장 25-27절은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가장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왕국 메시지를 숨기신다는 것을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또한 13장 11-15절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을 가지고 계심을 확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외심과 예배의 정신으로만 이러한 신적 주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학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책임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27절과 11장 28-30절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뒤이어 11장 28-30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16장 15-17절에서도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셨으며, 이는 베드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부하시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으십니다(7:6).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는 속담처럼 죄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죄에 안주하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전파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수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네, 지금 막 깨달았다면, 제가 칼빈주의자라는 걸 인정합니다. 속담처럼, 저를 고소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마태복음 13장 서론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상세한 해석은 비유가 현실과 단 하나의 관련 지점만을 가진다는 통념을 반박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큰 주목을 받아 온 율리허의 견해를 보면, 많은 해석학 서적에서 비유에서 단 하나의 실제적인 요점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예수님께서 그 책들을 읽지 않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분명히 왕국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이 핵심에 깊이와 세부성을 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분 이시지만, 이 비유는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나아가 왕국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 후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으로 넘어가기 위해 처음 세 가지 유형의 토양은 왕국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사탄, 박해, 그리고 탐욕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사탄의 반대는 씨앗이 길가의 딱딱한 땅에 떨어질 때, 즉 인간의 죄와 신적 버림받음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묘사됩니다. 13:15을 보고 9:4, 12:34, 15:8, 18:19, 24:48과 비교해 보십시오. 박해는 메시지를 즉시 기쁘게 받아들일 때 효과적입니다. 이는 분명히 지적인 이해라는 뿌리가 없는 순전히 감정적인 반응일 것입니다(13:21). 탐욕과 세속적인 걱정 또한 왕국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자로서의 요구가 물질적인 생활 방식에 직면할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13:22). 6:19-34, 16:24-26, 19:23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께는 완악하지만 사탄에게는 순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의 영원한 위험에 대해 청중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얕은 감정의 영향에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에는 닫힌 마음은 문제가 생길 때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걱정과 부에 쉽게 이끌리는 마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서 멀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엄숙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설교단에서 너무나 드물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13장 23절에 언급된 좋은 땅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제자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이 소위 주권 구원 논쟁입니다 . 스스로 를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며, 때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로 풍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행위가, 설령 사탄이나 박해,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 방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틀림없이 인도하는 진정한 영접이라고 결론짓게 합니다.

그런 해석가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흙, 아마도 첫 번째 흙만 빼고는 모두 진정한 회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열매가 진정한 제자됨의 시험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해석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마태복음 3장 8-10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7장 16-20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12장 33절에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 열매가 없었던 것을 보십시오. 21장 19절에서 악한 소작농의 비유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비유에서도 21장, 34장, 41장, 43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열매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13장 23절에 따르면 열매 맺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단계, 어떤 사람은 60단계, 어떤 사람은 100단계입니다.

이것은 저처럼 제자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를 피하도록 이끄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권위 있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열매 맺는 것처럼 경건함도 수확이 있기 전에 성장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성숙한 제자도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씨앗을 받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만이 진정한 회심의 그림이라고 결론짓겠지만, 그 결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우리만의 인간적인 율법주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누군가가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관대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생각 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23절까지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배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다음 비유, 즉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반응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사악함과 불신, 사탄의 계략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 목적에서 설명될 것입니다.